



소상공인 114개 사, 방송광고 제작 지원 받아

- 티브이(TV)·라디오 광고 등 최대 900만 원 지원...1대1 마케팅 상담도 -

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14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·송출 지원을 받는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‘2026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’의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114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.

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(TV)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%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:1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.

이번 제작지원 공개모집에는 총 615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, 사업 운영 계획 및 경쟁력, 광고적합성, 성장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,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83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31개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.

자세한 평가 결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(<https://www.kobaco.co.kr/smad>)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.

한편 2025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,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7.9%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11.8% 늘어났다고 응답해 업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금 17억 원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약 4억 원을 방송광고비로 추가 사용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.

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“방송광고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방송광고 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되길 바란다”면서 “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‘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’ 효과 평가
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정아 (02-2110-1270)
		담당자	사무관	문정경 (02-2110-1271)



□ 사업 개요

- 소상공인*의 자생력 확보와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송광고 지원사업 추진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

□ 효과평가 주요내용

- (매출 증가) 매출 총액은 '24년 1,301억원에서 '25년 1,403억원으로 전년대비 7.9%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성장에 도움

< 2025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>

조사대상	2024년 매출액(백만원)	2025년 매출액(백만원)	증가율(%)
193개 사	130,080	140,348	7.9

- (고용 증가) 고용자 수는 '24년 289명에서 '25년 323명으로 평균 11.8% 증가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

< 2025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고용자수 증감 >

조사대상	2024년 고용인원(명)	2025년 고용인원(명)	증가율(%)
193개 사	289	323	11.8

- (방송광고시장 활성화) 정부 보조금(17.25억원)에 자체자금(3.77억원)을 추가하여 총 21.02억원을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로 지출하는 등 신규 광고수요 창출 효과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

< 2025년 지원 소상공인 방송광고비 집행현황 >

구분	지원 기업수	제작 및 송출비 (단위: 백만원)		
		지원금	자체 자금	계
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	193	1,725	377	2,102